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11.23.(월) 14:00 배포 2026.11.23.(월) 09:00

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5주년 기념 자금세탁방지 국제세미나 개최

- 국내외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경험을 공유하고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체계 발전방안 논의 -

◇ 금융정보분석원·은행연합회·한국금융연구원 공동주최로 자금세탁방지 국제세미나 개최

◇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과 한국의 위험기반 감독체계 운영 경험 및 개선과제 논의

◇ 일본 미즈호은행과 신한은행의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실무사례를 통해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방안 모색

「자금세탁방지의 날」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

금융정보분석원(FIU)은 11월 23일(월) **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5주년**과 **제20회 「자금세탁방지의 날」을 맞아 은행연합회,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**으로 자금세탁방지 **국제세미나를 개최**하였다.

이번 국제세미나는 「International Seminar on Enhancing Korea's Risk-Based Approach and AML/CFT Supervisory Framework」를 주제로, 국내외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**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체계 운영 경험**을 **공유**하고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**발전방향을 모색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최근 **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금융거래의 복잡성 증대**로 **자금세탁 위험이 다양**해짐에 따라, **금융회사**가 **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적용**하는 **위험기반접근법**(RBA, Risk-Based Approach)과 **감독당국**이 **고위험 분야에 감독역량을 집중**하는 **위험기반 감독**(RBS, Risk-Based Supervision)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.

이번 세미나에서는 **국내외 감독당국의 위험기반 감독체계 운영 경험**과 **개선과제**, **금융회사의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운영사례**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.

주요 인사 축사

세미나에 앞서 **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**과 **이찬진 금융감독원장**, **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**의 **축하영상**이 상영되었다.

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"신기술 발전과 금융범죄 수법의 다양화로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"며, "금융회사는 **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조치를 적용**하고 **감독당국도 고위험 분야에 감독역량을 집중**해야 한다"고 강조하였다. 아울러 **위험기반접근법**은 고위험 분야의 자금세탁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위험 분야의 원활한 금융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**중요**하며, **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**를 **구축하기 위해 노력**하겠다고 밝혔다.

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"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신종피싱,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등 **새로운 위험에 대응**하기 위해 **금융회사의 자체 위험관리 역량과 정보공유·협업체계 강화가 필요**하다"고 강조하였다. 또한 FATF **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위험기반 감독체계**를 지속적으로 **고도화**하고 금융회사와 관계기관 간 **협력을 강화**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**"위험기반접근법(RBA)이 자금세탁 위험을 정확히 식별·평가**하고 **위험 수준에 비례**하여 **관리조치와 자원을 배분**하는 **국제기준의 핵심 원칙"**이라고 강조하였다. 아울러 **위험기반 감독체계의 실효성**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른 **차등화된 검사·감독**과 검사기관 간 **일관성 확보**가 중요하며, 이를 위해 **범정부 차원의 협력**과 감독당국·금융회사 간 **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요**하다고 밝혔다.

제1세션: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 운영 경험과 개선과제

첫 번째 세션에서는 **싱가포르 통화청(MAS)과 한국금융연구원**이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**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표**하였다.

싱가포르 통화청의 통렝옝(Thong Leng Yeng) Executive Director는 **싱가포르의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를 소개**하였다. 싱가포르는 **금융업권별 위험평가를 바탕**으로 은행,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자 등 **고위험 분야에 감독역량을 집중**하고 있으며, **데이터 분석과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**를 통해 **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을 탐지**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

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정두 연구위원은 **우리나라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의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**하였다. 앞으로 금융회사별 **위험평가 결과를 검사·감독에 보다 충실히 반영**하고, 검사기관의 **감독역량 강화와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검사·제재** 등을 통해 **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** 한다고 제언하였다.

제2세션: 금융회사의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 운영사례

두 번째 세션에서는 **일본 미즈호은행과 신한은행**이 금융회사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의 **실제 운영사례를 공유**하였다.

일본 미즈호은행의 히로시 사가와(Hiroshi Sagawa) 부장은 **자금세탁 위험의 식별·평가**부터 **위험경감 조치, 효과성 검증 및 개선**에 이르는 **위험기반 관리체계를 소개**하였다. 특히 고객확인, 거래 모니터링, 의심거래보고 등 **주요 업무와 내부통제체계를 연계**하여 **위험기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례**를 공유하였다.

신한은행의 윤희승 팀장은 데이터 기반의 **상시 위험 모니터링 체계**와 **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내부통제 운영사례**를 발표하였다. **위험지표**의 변화를 **대시보드로 파악**하고, **위험 수준에 따라** 맞춤형 교육, 점검 강화 및 영업점 안내 등 **관리조치를 차등 적용**하는 **위험기반 관리체계를 소개**하는 한편, **향후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** 등을 통해 **고위험 분야에 관리역량을 집중**하는 등 **위험관리 체계의 고도화 방향을 제시**하였다.

향후 계획

이번 국제세미나는 **해외 감독당국의 위험기반 감독 경험**과 **국내외 금융회사의 실무사례를 공유**하고,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**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**하는 계기가 되었다.

특히, **2028년 시작되는 FATF 제5차 상호평가**에서는 **위험기반접근법**(RBA)의 **실질적인 이행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효과성이 중요**하게 평가되는 만큼, **금융정보분석원**은 금융회사의 위험 수준에 따른 **차등화된 관리체계와 감독당국의 위험기반 감독체계**를 **지속적으로 고도화**하여 **상호평가에 충실히 대비**해 나갈 계획이다.

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**해외 우수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**하고, **은행연합회 및 한국금융연구원** 등 관계기관과의 **협력을 강화**하여 **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실효성**을 **지속적으로 높여**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	책임자	기획행정실장	박 주 영 (02-2100-1720)
		담당자	서기관	정 태 호 (02-2100-1730)
			사무관	서 은 미 (02-2100-1852)
			사무관	박 미 리 (02-2100-1788)
	은행연합회	책임자	준법지원부장	정 재 호 (02-3705-5390)
		담당자	팀장	김 은 (02-3705-5025)
	한국금융연구원	책임자	디지털금융연구실장	이 정 두 (02-3705-6121)
		담당자	연구원	장 성 현 (02-3705-619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